

내신 기출

국어 창비 (1학기)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풀버전] 네이버 검색 '총만국'

<<내신 기출 국어 창비>>

◆차례◆

1. 독서는 나의 힘

- (1)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_김찬호-----1쪽 (37문제)
- (2)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_박상률-----15쪽 (26문제)

2. 문학의 갈래

- (1) 비_정지용-----30쪽 (51문제)
- (2) 삼포 가는 길_황석영-----43쪽 (47문제)
- (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_노희경-----64쪽 (43문제)
- (4) 보지 못한 폭포_김창협-----84쪽 (29문제)

3. 국어와 우리 생활

- (1) 음운의 변동-----94쪽 (61문제)
- (2) 한글 맞춤법의 원리-----110쪽 (65문제)
- (3)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127쪽 (24문제)

4. 소통하는 말과 글

- (1) 공간이 달라지면 사는 풍경도 달라질까_전남일---136쪽 (20문제)

▶정답 -----146쪽

▶해설 -----148쪽

(버전: 2020.03)

1-(1)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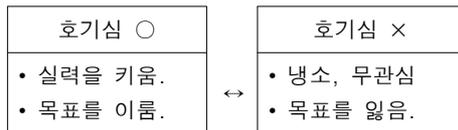
◆핵심 정리

갈래	중수필
성격	비판적, 설득적
주제	진정한 꿈과 가치 있는 삶의 의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여 글쓴이의 의견에 설득력을 더함. •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독자가 화제에 집중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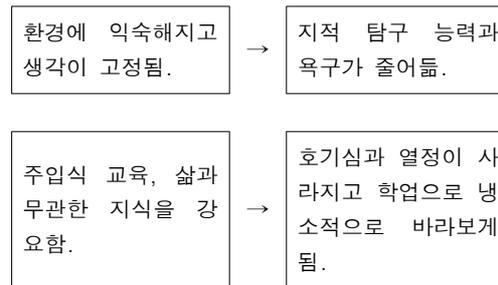
◆구성

처음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감소시키는 현실에 대한 비판
중간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위로
끝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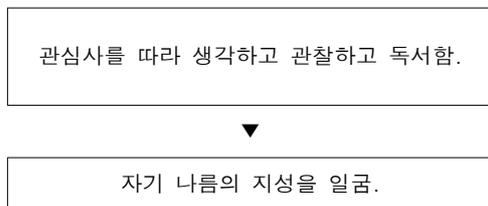
① 호기심 유무에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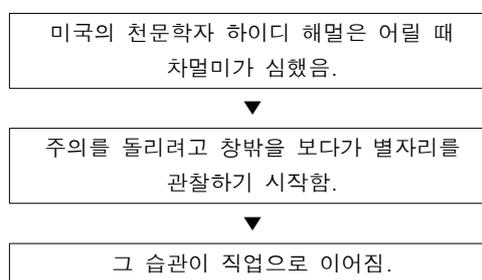
② 자라면서 호기심이 사라지는 이유



④ 진정한 앎이 일어나는 과정



⑤ 우연한 경험으로 적성을 깨달은 예



풀버전] 네이버 검색 '총만국'

1-(1) 확산이 없어도 괜찮아



1-(1)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반짝이는 눈으로 주변 세계를 탐구하고 어른들에게 질문한다. 그런데 점차 환경에 익숙해지고 생각의 집이 건축되면서 그러한 지적탐구 능력과 욕구가 서서히 쇠퇴한다.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식이 딱딱한 형식으로 주입되면 안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호기심이 점점 줄어든다. 공부에 대입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대학 공부마저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로 획일화되는 상황에서 지성은 거의 실종되어 버린다. 도구화된 공부는 열정을 수반하기 어렵다. 삶과 무관하게 보이는 지식을 강요받으면서 학업을 냉소적인 태도로 바라보게 된다.

(나) 진정한 앎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관심사를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면 자기 나름의 지성을 일구어 갈 수 있다. 그 실마리는 우연히 생겨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우주 과학 연구소에서 외행성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하이드 해럴은 어릴 때 부모와 여행을 많이 했는데 차멀미가 심했다고 한다. 주의를 돌리려고 창밖을 보다 별자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공부를 하면서 차멀미를 잊을 수 있었다. 그런 습관이 직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듯 어릴 때의 우연한 경험으로 자신의 적성을 깨닫고 그 길로 한결같이 나아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종종 있다.

(다) 얼마 전 어느 긴급 구호 활동가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쓴 칼럼을 읽었다. 그중 학창 시절 내내 공부하라는 말만 듣다가 갑자기 “가슴 뛰는 일을 하라.”라는 말에 당혹해질 청소년들에게 건넨 위로의 말이 인상 깊었다.

“지금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그 방향으로 첫걸음을 떼었느냐가 중요하다. ㉡완벽한 지도가 있어야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수십 가지다. 비행기나 고속 철도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국도로 가는 승용차처럼 돌아가는 방법도 있다. 질러가든 돌아가든 여러분의 인생 표지판에 신의주가 아니라 부산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보이기만 하면 된다. 방금 본 ㉣이정표에 대전이라고 써 있어도 괜찮다. 목표라고 써 있어도 놀라지 마시길. 여러분은 잘 가고 있다. 적어도 남행선 상에 있으니까.”

(라) 청소년기에 인생의 목표를 명명백백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의사, 변호사, 언론인, 공무원, 교사 등 직업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평생 몸담을 직업을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인생의 목표는 직업으로 수렴되지 않으므로 의사나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가 꿈인 인생은 공색하다. 그 직업을 얻고 나면 더 이상 추구할 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많은 대학생이 혼란과 방황에 빠저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학 입학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하던 고등학생들이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차라리 목표가 뚜렷했던 수험생 시절이 행복했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 또다시 취직을 겨냥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마) 그렇다면 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직업 그 자체를 꿈으로 삼기보다 장차 공무원으로서 어떤 정책을 실현하여 지역 사회와 시민 생활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싶다는 이상을 품어야 한다. 똑같은 의사라 해도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의사와 환자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쏟는 의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서는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기에 적성 검사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뜻대를 확인했다면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확신이 다소 불투명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미 우리의 꿈은 어떤 전공이나 직업에 머무르지 않으며 그 꿈을 실현하는 길은 여러 갈래로 나 있기 때문이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얼핏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좁은 샅길을 찾아내고, ㉦없는 길도 뚫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난관에 좌절하지 않고 실패를 무릅쓰고 계속 전진하는 힘도 바로 그러한 열정에서 솟아오른다.

-김찬호,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대연고등학교 (부산)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② 타인의 글을 인용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인생에 대해 깊이 있게 사색한 내용을 담아 독자가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 한다.
- ④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주요 내용을 제시해 독자의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 ⑤ 요즘 젊은이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과 그들의 가치관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연고등학교 (부산)

2.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직 내 적성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겠어.
- ② 미래에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겠어.
- ③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해 불안해 하는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글이겠군.
- ④ 진정한 앎을 얻기 위해서는 관심사를 따라 관찰하고 독서하는 습관을 가져야겠군.
- ⑤ 인생에서 순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군.

1-(1)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대연고등학교 (부산)

3. (다)의 긴급 구호 활동가와 글쓴이가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활동가: 청소년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② 글쓴이: 저도 동의합니다. 성인 중에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만 종사하고 싶은 직업은 대략 정해 두는 것이 좋겠지요.
- ③ 활동가: 목표가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대략 방향만이라도 정할 수 있다면 그것에 따라 무엇인가 시작을 하는 것이 좋아요.
- ④ 글쓴이: 삶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 ⑤ 활동가: 맞아요. 그리고 목적지를 향한 방향만 결정된다면 조금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혹은 조금 돌아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대연고등학교 (부산)

4. 윗글 (다)의 밑줄 친 '가슴 뛰는 일을 하라'와 관련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십시오.

- (1) '가슴 뛰는 일'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서술하십시오.
- (2) 청소년들이 '가슴 뛰는 일을 하라.'라는 말을 듣고 당혹해하는 까닭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십시오.

대연고등학교 (부산)

5. 윗글의 글쓴이가 <보기>의 나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고등학교 시절, 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눈을 피해 남몰래 시를 썼다. 어느 때부터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학년이 높아지며 점차 학교생활이 지긋지긋해질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오로지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는 듯이 '대학, 대학' 하는 분위기가 싫어지면서였다.

'사람이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이게 뭐야…….'

나는 전체 학생이 죄다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 날이 갈수록 바보가 되어 간다고 생각했다. 그런 때 시를 만나게 나로서는 굉장한 행운이라 생각했다.

'시를 모르고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시는 바로 인생이고, 인생은 바로 시야. 난 기어코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시를 쓸 거야.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시를 쓸 거야!'

- ① 대학에 가야 진정한 지성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요?
- ② 시를 쓴다고 자신에게 닥친 현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 ③ 자신이 하기 싫다고 해서 학업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좋지 않아요.
- ④ 삶과 무관한 지식이 아니라 삶과 연관된 시를 택하겠다는 용기를 격려하고 싶네요.
- 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학을 들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대연고등학교 (부산)

6.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진로를 성찰하기 위한 세밀한 계획
- ② ㉡: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 ③ ㉢: 자신이 목표를 삼을 진로
- ④ ㉣: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
- ⑤ ㉤: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이나 진로

지동고등학교 (경기)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담겨 있다.
- 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문제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 ㄷ.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 ㄹ. 일상에서 보고 들은 바를 객관적을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ㅁ. 상반되는 학설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ㅁ

1-(2)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핵심 정리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장 소설
성격	회고적, 성찰적
주제	청소년의 순수한 사랑과 정신적 성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과거-현재’로 시간을 바꾸어 가며 사건을 전개함. • 서술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함. • 성장기에 겪는 첫사랑과 성장의 통과 의례를 다룬 성장 소설임.

◆구성

발단	‘나’는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현아의 연락을 받고 현아를 만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림.	위기	‘나’는 문학과 관련이 없는 학과에 진학하여 취직하지만 돈 세는 기계가 되었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두고 소설가가 됨.
전개	‘나’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의 하숙집에서 본 현아를 좋아하게 되고, 직접 시를 써서 시집을 만들. 그러나 현아가 집에 없어 친구에게 대신 전해 달라고 하는데, 그 뒤에 현아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상심함.	절정	이십 년 만에 만난 현아는 남편의 유품에서 찾았다며 ‘나’가 쓴 시집을 건넨. 현아의 남편은 ‘나’의 고등학교 친구로, 그 역시 현아를 좋아해 시집을 현아에게 전해 주지 않았음.
		결말	‘나’는 그 시집이 현아한테 어울리게 쓴 것이므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며 자리에서 일어남.

①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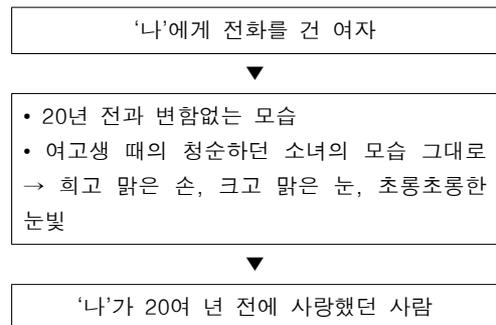
마감 날짜를 어긴 원고가 있어 밤을 새워 글을 씀.	▶	글을 쓰는 직업임을 알 수 있음.
이른 시간에 어떤 여자의 전화를 받음.	▶	‘스무 해 동안 간혀 있던 말들’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들음.

현아가 ‘나’에게 돌려주려 한 물건

노란 봉투 속 공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을 내 사랑하는 소녀 현아에게 바친다.”라는 문장 • 날짜와 ‘나’의 이름
------------	---

‘나’가 20여 년 전에 현아에게 주기 위해 시를 써서 만든 시집

② 현아



1-(2)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p>현아가 '나'의 시에 미친 영향</p>	<p>▼</p> <p>현아를 좋아하는 마음을 현아에게 전달하려 함.</p> <p>▼</p> <p>현아에게서 느끼는 연애 감정을 시로 표현함.</p> <p>▼</p> <p>소녀의 눈은/맑은 이슬로만 채워진 호수입니다 햇살이 내리쬐면 호수가 반짝입니다 금빛으로 은빛으로/빛나는 호수면/그 위에 가만히 눕고 싶습니다</p>
<p>현아를 만나기 전</p> <p>막연히 내 멋대로 세상에 대해 내뽐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시</p> <p>▼</p> <p>현아를 만난 후</p> <p>구체적인 대상을 두고 절실하게 애를 태우는 감정이 그대로 문 어나는 시</p>	
<p>'나'가 더 이상 시를 쓰지 않게 된 이유</p>	<p>시집이 현아에게 전달되지 않은 이유</p>
<p>'나'는 현아에게 전해 달라며 수제품 시집을 친구에게 맡김.</p> <p>▼</p> <p>친구는 시집을 현아에게 전하지 않고, '나'는 이 사실을 모름.</p> <p>▼</p> <p>'나'는 현아가 시집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하 고, 현아는 시집의 존재를 알지 못함.</p> <p>▼</p> <p>'나'는 현아에게 아무런 반응도 받지 못하자 더 이상 시를 쓰지 않게 됨.</p>	<p>시집의 내용 → 현아를 향한 '나'의 마음</p> <p>▼</p> <p>친구의 마음 → 현아를 향한 애정</p> <p>▼</p> <p>현아를 좋아하던 친구는 '나'의 마음이 담긴 시집을 현아에게 전해 줄 수 없었음.</p>
<p>'나'가 시집을 돌려받지 않은 이유</p>	<p>'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시집'의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아에게만 어울리게 쓴 시들 • 현아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소용없는 시들 <p>▼</p> <p>현아를 위해 쓴 시집이므로 그 주인은 '나'가 아니라 현아임.</p> <p>▼</p> <p>시집을 돌려받을 이유가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생 시절 '나'가 현아를 생각하며 쓴 시를 엮어 만든 책 • 현아 외에는 누구에게도 소용없는 시로 이 루어진 책 • 현아에게만 어울리게 쓴 시들만 들어 있는 책 <p>▼</p> <p>한 사람을 위한 맑고 순수한 첫사랑</p>

㉑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아는 같은 반 친구가 하숙하고 있는 집의 주인 딸이었다. 그 친구와 나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다. 그래서 둘은 걸로나마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다. 어느 날 친구 하숙집에 우연히 들렀다가 우리보다 한 학년 아래라는 현아를 보았다. 순간 속으로 남몰래 도인인 척했던 나 자신의 바탕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검정 교복, 그리고 가는 목에 둘러진 하얀 깃. 오뚝한 코에, 아침 햇살을 머금은 이슬처럼 반짝거리는 눈. 나는 현아를 제대로 바라보는 커녕 거의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 현아가 희고 맑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오빠, 시 쓴다면서? 야, 멋지다!”

현아가 내 손을 쥐는 순간 온몸이 찌릿찌릿하며 어지러웠다. 이어 현아가 손을 가볍게 흔들기까지 하자 내 온몸이 다 흔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발 딛고 서 있는 바닥까지 흔들리는 것 같고, 급기야 지구가 흔들리고 온 세상이 다 흔들리는 것만 같았다. 친구가 현아에게 내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현아는 내가 시를 쓴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애써 티를 내지 않았지만 친구는 내가 하는 짓을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오빠, 교과서에 나오는 시는 뜻도 알쏭달쏭하고 재미도 없잖아. 그런 시 말고, 사람들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서 줄 수 있는 시를 써 봐!”

나는 뭔가 단단한 것으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사람들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서 줄 수 있는 시!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 나는 그다지 불일도 없으면서 틈이 날 때마다 친구 하숙집, 아니 현아네 집에 들렀다. 스스럼없고 짹짹한 소녀인 현아는 친구가 없어도 나를 거리낌 없이 대해 주었다. ‘오빠’라는 소리는 첫 만남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했고, 자기가 본 책이나 영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나는 본디 여동생이 없는 터라 현아가 더욱 사랑스러웠다. 특히 맑고 큰 눈을 바라볼라치면 마치 커다란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고, 곧 그 눈 속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나는 바야흐로 막연하기 짝이 없는 삶이니 세상이니 하는 것은 뒤로 체쳐 놓고 눈앞의 현아 생각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현아를 보러 가는 꼴이 되고 말았다. 어느 순간부터는 속으로 아예 친구가 집에 없기를 바라며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친구도 없고 현아도 없는 날엔 괜히 심통이 나기도 했다. 혹시 둘이서만 영화라도 보러 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나는 현아네 집에 갔다 오기만 하면 열병을 앓았다. 현아를 만난 날이면 현아를 만난 느낌이 좋아서 그랬고, 현아를 만나지 못한 날이면 애가 타서 그랬다. 좋은 느낌은 좋은 느낌 그대로 간직하고 싶었고, 애가 탄 느낌은 어떻게든 현아에게 전달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연습장을 펴 놓고 뭔가를 끼적끼치게 되었다. 그동안 끼적끼던 시와는 다른 시를 끼적끼리게 된 것이다. 막연히 내 멋대로 세상에 대해 내뱉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두고 절실하게 애를 태우는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말들이 튀어나왔다. 그때부터 나는 연

애 감정보다 더 소중한 감정은 이 지상에 없는 거라고 여기며 열심히 연애시를 써 갈겼다. 어느 순간이 지나자 연습장에 따로 쓸 필요도 없었다. 공책 한 권을 마련하여 일련번호까지 매긴 뒤 바로 시를 썼다. 며칠 지나지 않아 공책 한 권이 아주 감동스러운 연애시로 가득해졌다. <중략>

[A]: [눈이 멈추고 며칠이 지났다. 나는 현아가 내 시집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해서 안달이 났다. 그러나 다른 때와 달리 현아네 집에 가 보기가 망설여졌다. 학교는 이미 겨울 방학이어서 친구를 학교에서 볼 일도 없었다. 몇 번씩이나 현아네 집 골목에 들어섰다가 발길을 돌리곤 했다. 오다가다 우연이라도 현아를 만나기를 바랐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현아에게서 아무런 반응을 못 받은 나는 더 이상 시를 쓸 수 없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현아네 집 쪽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이 절망했는지 모른다.

-박상률,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병점고등학교 (경기)

1.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아가 써 보라고 개인한 시는 나의 시적 경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군.
- ② 나는 현아가 시를 쓰는 자신을 ‘야, 멋지다!’라고 인정해주는 순간 마음을 빼앗겼군.
- ③ 나는 현아로 인해 느낀 절망으로 인해 그 해 겨울을 시리고 차갑게 기억하게 되겠군.
- ④ 내가 쓴 ‘공책 한 권’은 현아에 대한 나의 마음을 담은 세상에서 단 한 권뿐인 시집이로군.
- ⑤ 현아네 집에 하숙하고 있는 친구로 인해 내가 현아를 만나게 되었으니, 나보다 친구와 현아가 먼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겠군.

병점고등학교 (경기)

2. 윗글의 [A]를 <보기>과 같이 바꾸었을 때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눈이 멈추고 며칠이 지났다. 영환은 또 현아의 집 대문이 보이는 골목길에 서 있었다. 똑같은 곳에 똑같은 발자국을 찍어대며 영환은 골목길을 서성서렷다. 오가는 이가 없는 골목길은 한산했다. 거리가 어두워질수록 현아의 집 대문을 바라보는 영환의 얼굴도 어둡게 가라앉았다. 숙였던 고개를 든 영환은 현아의 집 쪽으로 한 발자국 가다가 싶더니 이내 방향을 돌려 천천히 뒤돌아 걸어갔다. 어둠이 천천히 영환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 ① 인물의 행동이 적극적으로 변화한다.
- ② 인물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서술된다.
- ③ 서술자의 심리가 간접적으로 제시된다.
- ④ 요약적 서술로 인물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 ⑤ 시간적 배경의 변화와 인물의 심리가 긴밀하게 연결된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자는 내 사정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전화를 끊었다. 끝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나는 도깨비에게 홀린 것만 같았다. 웬 여자가 느닷없이 새벽같이 전화하더니 나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나가겠다고 했다. 누구인지도, 어떤 일인지도 모르면서 거절하지 못하고 나간다고 한 자신이 우습기만 했다. 원래 나는 오전 약속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사로운 일은 물론 출판사 일 따위를 보러 나갈 때도 될 수 있으면 오후에 약속을 잡아 나간다. 굳이 복잡한 아침 출근 시간에 바깥에 나갈 까닭이 없는 것이다. 더더구나 오늘은 밤을 꼬박 새우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이른 아침의 일방적인 약속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닌 밤중에 흥두깨지, 이게 뭐야? 나한테 돌려줄 게 뭐지? 어떤 여자지?’

(나) “오빠, 교과서에 나오는 시는 뜻도 알쏭달쏭하고 재미도 없잖아. 그런 시 말고, 사람들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 줄 수 있는 시를 써 봐!”

나는 뭔가 단단한 것으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사람들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 줄 수 있는 시!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 나는 그다지 불일도 없으면서 틈이 날 때마다 친구 하숙집, 아니 현아네 집에 들렀다. 스스로럽고 싹싹한 소녀인 현아는 친구가 없어도 나를 거리낌 없이 대해 주었다. **[A] [‘오빠’라는 소리는 첫 만남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했고, 자기가 본 책이나 영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나는 본디 여동생이 없는 터라 현아가 더욱 사랑스러웠다.

(다) 나는 시집을 품속에 넣고 걸옷을 단단히 여며 눈에 맞지 않도록 했다. 현아네 집까지 가는 동안 내 발걸음은 공중에 붕붕 뜨는 것 같았다. 뺨에 와 닿는 눈이 차갑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머리에 쌓이는 눈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지도 않아 일부러 털어 낼 필요도 없었다.

현아네 집 골목 어귀에 들어섰을 때였다. 눈 위에 발자국 넷이 찍혀 있었다. 남자 신발과 여자 신발 한 쌍이었다. 눈은 발자국 위에도 쏟아져 내렸지만 발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발자국은 현아네 집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불현듯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혹시 들어서 눈맞이하다 들어간 게 아닐까?’

(라) 현아는 온통 눈을 뒤집어쓴 채 두 손을 모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반갑게 달려들 때처럼 손을 활짝 펼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눈사람 만들래?”

현아는 병어리장갑을 끼고 있었다. 나는 바지 호주머니에 두 손을 푹 찌른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일이었다. 나는 현아랑 눈사람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그보다는 먼저 현아가 내 시집을 받아서 읽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아니, 어쩌면 장갑을 끼지 않은 내 맨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영뚱한 말을 내뱉고 말았다.

(마) 눈이 멈추고 며칠이 지났다. 나는 현아가 내 시집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해서 안달이 났다. 그러나 다른 때와 달리 현아네 집에 가 보기가 망설여졌다. 학교는 이미 겨울 방학이어서 친구를 학교에서 볼 일도 없었다. 몇 번씩이나 현아네 집 골목에 들어섰다가 발길을 돌리곤 했다. 오다가다 우연이라도 현아를 만나기를 바랐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현아에게서 아무런 반응을 못 받은 나는 더 이상 시를 쓸 수 없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현아네 집 쪽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이 절망했는지 모른다.

-박상률, <세상에 단 한권뿐인 시집>

◆천안중앙고등학교 (충남)

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마)는 현재 시점의 사건을 (나)~(라)는 과거 시점의 사건을 서술하여 입체적 구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가)는 소설의 구성 단계 중 인물과 배경이 설정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단계이다.
- ③ (다)에서 ‘나’의 심리는 ‘걱정, 불안, 질투’에서 ‘설렘, 기대감’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④ (라)에서 ‘눈사람을 만들자는 현아의 제안을 거절’하는 ‘나’의 모습을 제시하여 ‘나’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마)에서 ‘겨울방학이어서 친구를 학교에서 볼 일이 없었다’는 내용은 사건 전개에 우연성을 부여하는 장치가 된다.

◆천안중앙고등학교 (충남)

4. 윗글의 [A]와 <보기>에서 사용된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을 비교하여 (1) 같은지, 다른지 밝히고 (2)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보기>

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가출옥되었다는 중환자가 업혀서 왔다. 험뎡그런 눈에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환자, 그는 간호원의 부축으로 겨우 진찰을 받았다. 청진기의 상아 꼭지를 환자의 가슴에서 등으로 옮겨 두 줄기의 고무줄에서 감득되는 숨소리를 감별하면서도, 이민국 박사의 머릿속은 최후 판정의 분기점을 방황하고 있었다.(중략) 순간 그는 이런 때의 가부 결정에 일도양단하는 자기 식으로 찰나적인 단안을 내렸다. 그는 응급 치료만 하여 주고 입원실이 없다는 가장 떳떳하고도 정당한 구실로 애걸하는 환자를 돌려보냈다.

-전광용, <꺼삐딴 리>

천안중앙고등학교 (충남)

5. (나)를 <보기>와 같이 바꾸어 서술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오빠, 교과서에 나오는 시는 뜻도 알쏭달쏭하고 재미도 없잖아. 그런 시 말고, 사람들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서 줄 수 있는 시를 써 봐!” / 그는 뭔가 단단한 것으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사람들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서 줄 수 있는 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시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 그는 그다지 불일도 없으면서 틈이 날 때마다 친구 하숙집, 아니 그녀의 집에 들렀다. 스스럼없고 짝짝한 소녀인 현아는 친구가 없어도 그를 거리낌 없이 대해 주었다. ‘오빠’라는 소리는 첫 만남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했고, 자기가 본 책이나 영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그는 본디 여동생이 없는 터라 그녀가 더욱 사랑스러웠다.

- ① (나)와 달리 <보기>는 작품 속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듯 서술하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보기>는 서술자 자신이 겪은 경험과 그 속에서 느낀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보기>는 주인공의 내면을 숨김으로써 긴장감과 경이감을 자아낸다는 것이 장점이다.
- ④ <보기>와 달리 (나)는 작가가 자신의 사상과 인생관을 직접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⑤ <보기>와 달리 (나)는 독자에게 신뢰감과 친근감을 주고 서술자의 내면 세계가 직접 드러난다.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고등학교 시절, 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눈을 피해 남몰래 시를 썼다. 어느 때부터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학년이 높아지며 점차 학교생활이 지긋지긋해질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오로지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는 듯이 ‘대학, 대학’ 하는 분위기가 싫어지면서였다.

‘사람이 공부하는 기제도 아니고 이게 뭐야.....’

나는 전체 학생이 죄다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 날이 갈수록 바보가 되어 간다고 생각했다. 그런 때 시를 만난 게 나로서는 굉장한 행운이라 생각했다.] (중략)

그렇게 시를 쓰네 문학을 합네. 하며 이 책 저 책을 난독하다가 그만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탈속한 듯한 주절거림과 선승들의 거침없는 기행담에 푹 빠져들었다. 그랬으니 학교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내가 당연히 좋은 학교 좋은 학과에 들어갈 줄 알았다.

“니는 없는 촌살림에 고등학교를 도시로까지 보냈은게 꼭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해야 되야. 알았제?”

아버지의 그런 바람과 달리 나는 대학 같은 건 거들떠보

지도 않았다.

‘그깟 대학 나와서 뭐한다고 저러실까? 나는 밥벌이보다 더 소중한 일을 할 사람인데.....’

대학 입시가 코앞에 닥쳐왔지만 나는 이미 대학 같은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뜻도 모를 어휘를 조합해서 탈속한 도인들의 잠언적인 냄새가 그럴싸하게 묻어나는 시 쓰기에 몰두했다.(중략)

나는 내가 시적 재능을 타고난 게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히히, 누가 이런 표현을 생각이나 하겠냐!’

나는 마치 신들린 듯이 시를 써 갈겼다. 시를 통해 못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말씀을 들려주어야만 할 것 같아서였다. 시인을 부처보다도 예수보다도 공자, 맹자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 믿었다. 그러니 시란 마땅히 세속의 탁한 삶에 눈먼 이들에게 뭔가 그럴싸한 경구를 들려주어야 하는 걸로 알았다. 이 세상의 모든 풍경이 다 시시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박상률, <세상에 단 한권뿐인 시집>

병점고등학교 (경기)

6.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자신에게 시인으로서의 재능이 있다고 믿고 있다.
- ② ‘나’는 잠언적인 시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③ ‘학생들’은 ‘나’와 달리 대학 입시와 학교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 ④ ‘선생님과 친구들’은 시인보다 부처나 예수, 공자, 맹자가 더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 ⑤ ‘나’의 부모님은 ‘나’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들어가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있다.

병점고등학교 (경기)

7. 다음은 ‘나’의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담은 부분이다. <보기>의 ‘나’가 밑글의 ‘나’에게 할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대학 4년을 보내고 군대까지 다녀온 뒤 들어간 직장에서 내가 맡게 된 일은 돈을 다루는 일이었다. 날마다 돈을 만지작거리는 일이 내 업무였다. 그런 어느 날, 무심코 돈다발을 정리하다 보니 만 원짜리를 한 손에 집을 때마다 정확하게 백만 원씩 손에 집히는 걸 알았다. 돈다발을 손에 쥐고 세기 위해 펼치면 금세 백만 원이 헤어려지긴 했지만, 무심코 돈을 집었는데도 백만 원씩 손에 집히는 건 끔찍한 일이었다.(중략) 나는 그렇게 다시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다. 고등학교 때에는 공부 기계가 되기를 거부하다 보니 시를 쓰게 되었고,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는 돈 세는 기계가 되기를 거부하다 보니 글을 쓰게 되었다.(중략) 결국 글을 쓰다 보니 세상을 건지느니 인생을 풍요롭게 하느니 하는 것보다는 뭐니 뭐니 해도 내 스스로를 위해 글을 쓴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의 이야기를 쓰는 것 같은데도 끝내 그 글로 위로를 받는 이는 나 자신이었으니까. 그렇게 날마다 썼다.

2-(1) 비

제재 소개

- 비 내리는 모습을 절제된 감정과 정제된 시어를 통해 한 폭의 산수화처럼 그려 낸 시
-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전과 후의 풍경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짧고 절제된 감각으로 묘사됨.
- 간결한 시행 속에서도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잘 보여 줌.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묘사적, 감각적, 비유적
주제	비 내리는 날의 풍경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 내리는 풍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사함. • 간결한 시행과 감각적인 묘사가 두드러짐. • 화자의 감정이 절제되어 나타남.

비가 내리는 과정

내리기 전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기 시작함.
빗방울	새의 꼬리와 걸음걸이처럼 튀어 오름.
가는 빗줄기	여울을 이루어 여러 갈래로 흐름.
굵은 빗줄기	붉은 잎을 소란히 밟으며 다시 떨어짐.

작품의 정서나 분위기

-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절제된 감정
- 생동감 있는 감각적 표현
-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 빗물이 여울을 이루어 흐르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듯 선명히 표현함.
- 화자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비 오는 날의 풍경을 묘사하여 그림을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줌.

'비'에 대한 표현과 시상의 전개 방식

'비'		
꼬리, 산새 걸음걸이 →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	수척한 흰 물살, 손가 락 → 비가 가 는 줄기를 이루어 흐 림.	붉은 잎 을 소란 히 밟고 감. → 빗줄 기가 굵 어짐.

-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 오는 모습의 변화 양상을 전개함.

활유적 표현

- 비 내리는 모습을 산새의 꼬리, 걸음걸이에 비유함.
- 빗물이 이룬 물줄기를 '수척한', '손가락'으로 표현함.
- 비가 '잎'에 내리는 모습을 '밟고 간다'고 표현함.

[참고] 활유법이란?

- 감정이 없는 대상, 즉 무정물을 감정이 있는 유정물처럼 표현하는 기법
-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부여하므로 대상을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음.

3, 4연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앞섰거니 하여/꼬리 치날리어 세우고,”와 “종종 다리 까칠한/산새 걸음걸이”를 ‘비 내리는 모습’으로 보는 관점과 ‘산새의 모습으로 보는 관점’이 있음.

① ‘비 내리는 모습’으로 보는 관점

앞섰거니 하여/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빗방울이 튀어 오르는 모습을 산새의 꼬리에 비유함.
종종 다리 까칠한/산새 걸음걸이	빗방울이 점차 세차게 떨어지는 모습을 산새의 걸음걸이에 비유함.

② ‘산새의 모습’으로 보는 관점

앞섰거니 하여/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비를 피해 앞다투어 도망가는 산새의 모습
종종 다리 까칠한/산새 걸음걸이	종종거리며 바쁘게 비를 피해 가는 산새의 모습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물리는
㉡소소리 바람

앞섰거니 하여
㉢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

멋은 듯
새삼 듣는 빗날

붉은 잎 잎
㉥소란히 밟고 간다

*소소리 바람: 이른 봄의 맵고 스산한 바람.

-정지용, <비>

대건고등학교 (대구)

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 ② 대조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⑤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자연의 순환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대건고등학교 (대구)

2. 이 시를 <보기>와 같이 바꾸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보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돌에 그늘이 생기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다. 포리를 치켜 올린 새들이 종종걸음을 걷는 것처럼 빗방울이 땅에 떨어져 툭툭 튀더니, 이내 물살은 여울을 이루어 몇 가닥으로 흘러 내려간다. 그러다 잠시 멎은 듯했던 빗줄기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붉은 나뭇잎에 빗방울이 소란스럽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 ① 위 시와 달리 [보기]에는 리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 ② 위 시와 달리 [보기]는 여백의 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 ③ 위 시와 [보기]는 모두 묘사하는 대상이 표현에 나타난다.
- ④ 위 시는 [보기]와 달리 대상에 대한 감정이 절제되어 있다.
- ⑤ 위 시와 [보기]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대건고등학교 (대구)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뜻풀이를 참고하여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을 유추한다면, '붉은 잎 잎'은 '꽃잎'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시적 화자가 실제 바라보았던 대상이 '빗방울'이라면, ㉢의 원관념은 '산새'다.
- ③ ㉣은 빗방울이 점차 세차게 떨어지는 모습을 시각화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은 물줄기가 가늘게 흐르는 모습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은 비가 멈추는 듯하다 다시 내리며 거세진 빗방울이 나뭇잎에 떨어지는 소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건고등학교 (대구)

4. 이 시를 영상물로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2연: 빠르고 밝은 느낌의 배경 음악으로 먹구름이 끼는 장면을 역동적으로 표현해야겠어.
- ② 1-2연: 돌에 서늘한 기운이 덮치고 한겨울 추위를 몰아오는 바람이 부는 장면으로 시작해야겠어.
- ③ 3-4연: 산새의 발자국을 연상하도록 튀어 오르는 빗방울의 모습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줘야겠어.
- ④ 5-6연: 여러 갈래로 흐르는 빗물에 시적 화자가 천진난만하게 손가락을 펼쳐 담고 있는 모습을 클로즈업해야겠어.
- ⑤ 7-8연: 빗소리를 듣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클로즈업하면서 소나기 소리를 효과음으로 넣어야겠어.

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물리는
소소리 바람.

앞섰거니 하여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갈같이
손가락 펴고.

멧은 듯
새삼 듣는 빗날

붉은 잎 잎
소란히 밟고 간다.

-정지용, <비>

대연고등학교 (부산)

5.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한 것의 종류가 다른 하나가 포함된 부분은?

<보기>

*언어로 표현된 사물의 감각적 영상을 가리킨다.
*대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대상의 상태, 모양, 움직임 등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하며, 함축적 의미를 표현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 ① 1연 ② 3연 ③ 4연 ④ 6연 ⑤ 8연

대연고등학교 (부산)

6. 위 시의 특징으로 옳바른 것은?

- ① 비 내리는 풍경을 인과적 흐름에 따라 묘사함.
- ② 간결한 시행과 복합적인 묘사가 두드러짐.
- ③ 화자의 감정이 제대로 분출되어 있다.
- ④ 감각적인 언어의 비유를 통해 대상을 묘사함.
- ⑤ 시적 화자가 전면에서 나서서 내용을 설명함.

대연고등학교 (부산)

7. 위 시의 4연의 대상이 실재하느냐에 따른 2가지 해석을 쓰시오.

- 1)
- 2)

범서고등학교 (울산)

8. 위 작품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압축적이고 절제된 언어 표현으로 여백의미를 자아내고 있다.
- ② 짧은 시행을 2행씩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리듬감을 드러낸다.
- ③ 시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여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⑤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범서고등학교 (울산)

9. 위 작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적 화자는 비 내리는 정경을 바라보고 있다.
- ② 1~2연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③ 5~6연에서 빗물이 여울을 이루어 여러 갈래로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④ 7~8연에서 멧은 듯하다가 다시 소란스럽게 나뭇잎에 떨어지는 빗방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⑤ 비 내리는 정경을 바라보는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2-(2) 삼포 가는 길

2-(2) 삼포 가는 길

「삼포 가는 길」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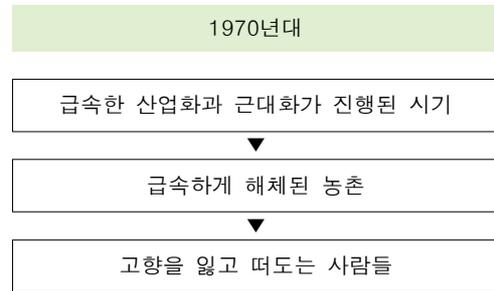
발단	밀린 밥값을 떼어먹고 공사판을 떠난 영달은 삼포로 가는 정 씨를 만나 동행하게 됨.	절정	백화가 영달에게 호감을 느껴 자신의 고향으로 함께 가자는 제안을 하지만 영달은 이를 거절하고, 백화는 홀로 떠남.
전개	삼포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감천으로 가던 중 영달과 정 씨는 술집에서 도망친 백화를 만나고, 이들 셋은 동행하게 됨.	결말	한 노인에게서 공사판으로 변한 삼포의 소식을 듣게 된 정 씨는 마음의 정처를 잃고 주저함.

핵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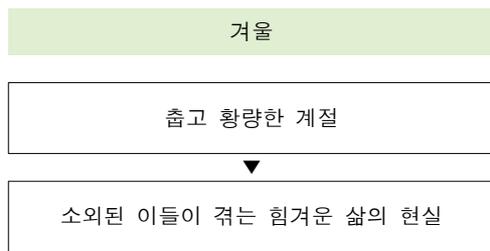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격	현실 비판적, 사실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적: 1970년대 겨울 공간적: 시골길과 감천역
주제	뜨내기 인생의 애환과 연대 의식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의식과 행동을 전달함. 1970년대 사회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이 드러남.

「삼포 가는 길」의 시간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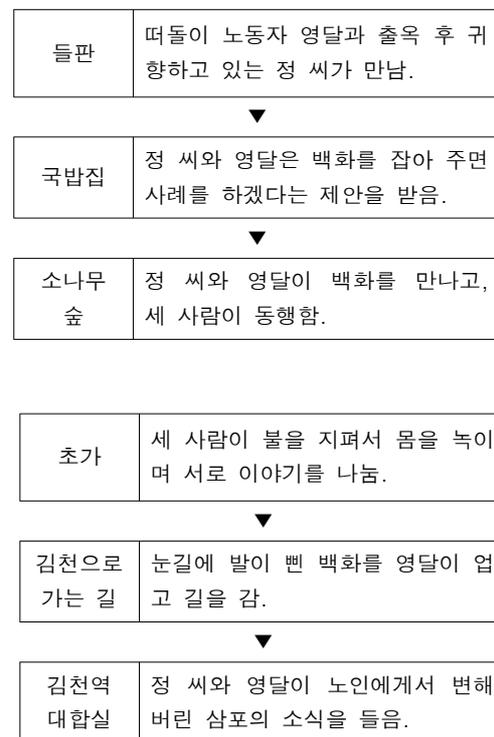
① 시대



② 계절



장소의 이동에 따른 줄거리



2-(2) 삼포 가는 길

제재 소개

- 1970년대를 배경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의 황량한 삶을 그린 소설
- 고달픈 인생을 대변하는 정 씨와 영달, 백화 세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정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는데, 여기에서 소외된 계층을 바라보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드러남.

「삼포 가는 길」의 등장인물

영달	뜨내기 노동자로 일자리를 찾아 떠돌.
정 씨	교도소에서 나와 공사장 노동을 하다가 고향인 삼포로 가고 있음.
백화	술집 작부로 살다 도망쳐 나와 고향을 찾아가고 있음.

고향을 떠나 타지를 떠돌며 뜨내기 삶을 살아가는 고단한 처지

등장인물들의 유대감

영달	발을 뺀 백화를 업어 줌.
정 씨	영달이 뜨내기 신세를 청산하고 정착해 지내기를 바람.
백화	영달에게 자기 몫의 시루떡에서 절반을 떼어 줌.

뜨내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유대감을 느낌.

본명을 밝히는 백화의 행동에 숨은 의미

백화	술집 작부로서의 이름 → 본질을 감춤.
이점례	평범하게 살던 시절의 이름 → 본질을 드러냄.

영달과 정 씨에게 자기 본명을 밝힘.

- 마음을 열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임.
-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유대감을 느낌.

‘삼포’의 변화에 담긴 의미

과거	현재
바다, 고기잡이하고 감자 매는 곳 → 정 씨가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의 정착처	육지, 트럭이 다니고 공사하는 곳 → 변해 버려 더 이상 정 씨에게 위안을 주지 못하는 곳

산업화와 근대화로 인해 마지막 안식처까지 잃고 헤매게 되는 사회 하층민의 고단한 삶

㉑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략 부분 줄거리] 영달은 공사가 중단되자 밀린 밥값을 주지 않고 달아났다가 길에서 우연히 정 씨를 만난다. 정 씨는 교도소에서 나와 고향인 삼포로 가고 있다. 함께 길을 걷던 그들은 국밥집에 들르고, 술 시중을 들던 백화라는 여자가 도망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들이 마을 외곽의 작은 다리를 건널 적에 성긴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허공에 차츰 흰색이 짙어졌다. 한 스무 채 남짓한 작은 마을을 지날 때쯤 해서는 큰 눈송이를 이룬 ㉑함박눈이 펄펄 쏟아져 내려왔다. 눈이 찔어서서 걷기에는 그리 불편하지 않았고 눈보라도 포근한 듯이 느껴졌다. 그들의 모자나 머리카락과 눈썹에 내려앉은 눈 때문에 두 사람은 갑자기 노인으로 변해 버렸다. 도중에 그들은 옛 원님의 송덕비를 세운 비각 앞에서 잠깐 쉬어 가기로 했다. 그 앞에서 신작로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던 것이다. 함석판에 페인트로 쓴 이정표가 있긴 했으나, 녹이 슬고 벗겨져 잘 알아볼 수도 없었다. 그들은 비각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정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했다.

“야, 그놈의 눈송이 탐스럽기도 하다. 풍년 들겠어.”
 “눈 오는 모양을 보니,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지는데…….”

[중략 부분 줄거리] 길을 걷다 소나무 숲에서 우연히 백화를 만난 정 씨와 영달은 백화 또한 집으로 가는 중임을 알게 된다. 세 사람은 기차역이 있는 감천을 향해 동행하고, 언 몸을 녹일 겸 찾아든 초가에서 각자 살아온 내력을 이야기한다.

“같이 가지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고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설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쭈근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냅시다.”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 빵 두 개와 찢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오.”
 영달이 대신 정 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앓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한 시간쯤 잤다. 깨어 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기차는 연락이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달이가 혼잣말로,
 “헛,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고?”
 “아뇨, 백화란 여자 말예요. 저런 애들…… 한 사날도 촌 생활 못 배겨 나요.”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일이 년 안으로 인정이 획 변해 가는 판인데…….”
 정 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어디 일들 가슈?”
 “아뇨, 고향에 갑니다.”
[A]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일 데나 됩니까? 고작해 야 고기잡이나 하고 갑자나 매는데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십 년.”
 노인은 그렇겠다면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말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고, 추력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뭇 땀에요?”
 “넌들 아나. 뭐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데.”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그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 이거든.”
 작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 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 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황석영, <삼포 가는 길>

범서고등학교 (울산)

1.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인을 통해 변해버린 삼포를 언급함으로써 산업화로 황폐화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시간이 지날수록 세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는 가까워지고 있다.
- ③ 백화는 자신의 본명을 밝힘으로써 정씨와 영달에 대한 유대감과 신뢰를 표현하고 있다.
- ④ 세 인물은 뜨내기 삶을 사는 고단한 처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⑤ 정씨와 영달은 서로 같은 이유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범서고등학교 (울산)

2. 아래의 밑줄 친 '눈'의 상징적 의미가 ㉠에서 암시하고 있는 '함박눈'의 상징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까마득한 날에 /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
모든 산맥들이 /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犯)하던 못하였으리라. //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
큰 강물이 비로서 길을 열었다. //
지금 눈 내리고 / 매화향기(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 이 광야(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 '광야'
- ② 山村(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못쳐세라
柴扉(시비)를 여지 마라 날 츠즈리 뉘 이시리
밤등만 一片明月(일편명월)이 귀 벗인가 흐노라
-신흥, '산촌에'
- ③ 이제 바라보노라. /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돌고 와 /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 나의 마음 속에 처음으로 / 눈 내리는 풍경. / 세상은 지금 목념의 가장자리 / 지나 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 보이지 않는 움직임. /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 내리는 눈 사이로 / 귀 기울어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 안에서는 어둠이 노라. / 온 겨울의 누리 떠돌다가 / 이제 와 위대한 적막을 지킴으로써 / 쌓이는 눈더미 앞에 /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고은, '눈길'

- ④ 바람이 눈을 모라 산창(山窓)에 부딪치니,
찬 기운(氣運) 시여 드리 좁든 매화를 침노(侵擄)한다.
아무리 얼우려 흐인들 봄 뜻이야 아슬소나.
-신흥, '매화사'
- ⑤ 눈 마자 휘어진 대를 누라서 굶다툰고
구불 절(節)이면 눈 속에 프를소나
아마도 세한 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원천석, '눈 마자'

보인고등학교 (서울)

3. 밑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치관의 갈등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 시점이 달라지고 있다.
- ③ 인물의 행동 묘사를 통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반전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의 교차를 통해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보인고등학교 (서울)

4. 밑글을 읽고 학생들이 심화학습을 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삼포'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지 인터넷에서 실제 지명을 찾아보았어.
- ② 백화가 고향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을지 궁금해서 친구와 토론을 해 보았어.
- ③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궁금해서 창작 당시의 시대 상황을 조사해 보았어.
- ④ 자신의 고향인 삼포가 변해 버린 것을 알게 된 영달이의 상실감을 떠올리면서 시를 창작해 보았어.
- ⑤ 영달이와 정 씨는 마지막에 기차를 타고 삼포에 도착했을지 알 수 없는데, 이러한 결말방식이 갖는 효과를 생각해 보았어.

보인고등학교 (서울)

5. [A]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 ① 상전벽해(桑田碧海) ② 각주구검(刻舟求劍)
- ③ 견위치명(見危致命) ④ 호가호위(狐假虎威)
- ⑤ 수주대토(守株待兔)

1-(1)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1.① 2.⑤ 3.② 4.(1): 자신의 순수한 열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일 (2):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5. ④ 6.④ 7.③ 8.② 9.⑤ 10.③ 11.② 12.⑤ 13.② 14.① 15.학창 시절 내내 공부하는 말만 들었기 때문 16.③ 17.② 18.⑤ 19.⑤ 20.④ 21.① 22.④ 23.③ 24.② 25. ③ 26.⑤ 27.꿈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무엇이다. /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서는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28.③ 29.② 30.① 31.관심사를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는 것을 통해 얻음 32.대학 입학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하던 고등학생들이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하기 때문 33.③ 34.① 35.⑤ 36.③ 37.②

1-(2)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1.② 2.⑤ 3.② 4.(1): 동일함 (2): 인물의 성격이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됨 5.⑤ 6.④ 7.② 8.② 9.⑤ 10.⑤ 11.④ 12.④ 13.② 14.④ 15.③ 16.① 17.② 18. ① 19.현아가 친구를 통해 시집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 '나'에게 현아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상처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 오직 현아를 위해 쓴 시이기에 '나'도 시집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20.④ 21.③ 22.⑤ 23.③ 24.① 25.③ 26. (가): 관념적, 추상적 (나): 감정적

2-(1) 비

1.③ 2.④ 3.② 4.③ 5.① 6.④ 7.1) 빗방울이 점차 세차게 떨어지는 모습 2) 빗방울 튀기며 바쁘게 걷어가는 산새의 모습 8.④ 9.② 10.① 11.② 12.산새의 걸음걸이를 사용하여 빗방울을 시각화한 것으로 활유법이 사용되었으며 빗방울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줌. 13.④ 14.① 15.① 16.④ 17.② 18.④ 19.① 20.⑤ 21.⑥산새의 꼬리 ⑥비유 22.⑤ 23.⑤ 24.③ 25.② 26.② 27.④ 28.시각적 이미지 사용 29.④ 30.⑤ 31. ⑤ 32.⑤ 33.① 34.④ 35.④ 36.④ 37.④ 38.의인법 39.물살 40.⑤ 41.③ 42.① 43.청각적, 시각적 44.활유법, 무생물인 비를 생물처럼 표현했기 때문 45.③ 46. ① 47.⑤ 48.② 49.③ 50.④ 51.④

2-(2) 삼포 가는 길

1.⑤ 2.③ 3.③ 4.④ 5.① 6.② 7.② 8.④ 9.⑤ 10.고향

이 도시화 및 산업화가 되면서 고향 상실감에 따른 쓸쓸함 혹은 소외감을 느낌 11.① 12.② 13.⑤ 14.③ 15.④ 16.③ 17.⑤ 18.④ 19.① 20.③ 21.③ 22.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23.① 24.② 25.④ 26.① 27.⑤ 28.⑤ 29.③ 30.⑤ 31.⑤ 32. ② 33.③ 34.② 35.뜨내기 신세 36.④ 37.⑤ 38.② 39. ④ 40.⑤ 41.1인칭 내부 시점에서 3인칭 외부 시점으로 변화함. 42.유대감과 고마움을 느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줌. 43.⑤ 44.③ 45.① 46.① 47.②

2-(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1.① 2.② 3.윗글은 시나리오로 인물의 심리가 대화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반면, <보기>는 소설로 인물의 심리가 직접 제시되어 있다. 4.③ 5.이 장면들은 공간 몽타주 기법에 해당한다. 공간 몽타주 기법은 각각의 장면을 적절하게 이어 붙여서 스토리가 있는 하나의 내용으로 만드는 기법이다. 6.⑤ 7.④ 8.① 9. ⑤ 10.③ 11.④ 12.③ 13.④ 14.⑤ 15.⑤ 16.④ 17.④ 18.⑤ 19.① 20.⑥: 몽타주 ⑥: 대조 21.② 22.① 23.④ 24.③ 25.④ 26.③ 27.③ 28.⑤ 29.③ 30.⑤ 31.① 32. ④ 33.① 34.③ 35.② 36.④ 37.① 38.⑤ 39.① 40.③ 41.② 42.① 43.③

2-(4) 보지 못한 폭포

1.④ 2.③ 3.⑤ 4.① 5.④ 6.⑤ 7.1) 골짜기 안에 기이한 폭포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들어서2) 황 씨에게 속고 만 것을 유감스러워했기 때문에 8.③ 9.① 10.③ 11.⑤ 12.㉠ 객 ㉡ 주 13.② 14.⑤ 15.③ 16.① 17.④ 18.① 19.③ 20.④ 21.⑤ 22.④ 23.① 24.② 25.③ 26. ③ 27.④ 28.⑤ 29.발은 실제적 본질을, 탁은 관념을 나타냄 / 삶의 실제적 본질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음

3-(1) 음운의 변동

1.① 2.① 3.⑤ 4.③ 5.③ 6.③ 7.신고[신고], 선릉역[설릉녘], 갔는데[간는데], 늦게[늦께], 도착했다[도차깜따] 8. ⑤ 9.① 10.④ 11.② 12.㉠ [달근] ㉡ [다가페] 13. ② 14.③ 15.③ 16.④ 17.② 18.② 19.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20.③ 21.② 22. ② 23. ④ 24. ⑤ 25.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음절의 끝소리 ㄷ, ㅌ이 형식 형태소 'ㅣ'나 반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26.③ 27.④ 28.⑤ 29.⑤ 30.(1) 타라, 모음 탈락 (2) 입학, 거센소